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오 하 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Tolerance of Uncertain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오 하 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택 호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오 하 나

오하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및 가설	5
II. 이론적 배경	6
A. 사회적 지지	6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특징	6
B. 진로탄력성	7
1. 진로탄력성의 개념 및 특징	7
2.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	9
C.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0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개념 및 특징	10
2.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관계	11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탄력성의 관계	12
D.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관계	12
III. 연구 방법	14
A. 연구 대상	14
B. 측정 도구	14
1. 사회적지지	14
2. 진로탄력성	15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6
C. 연구절차	17
D. 분석방법	18
IV. 연구 결과	19
A. 기초통계분석	19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9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20
3.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21
B.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23
1. 측정모형 검증	23
2. 구조모형 검증	25
3. 매개효과 검증	27
V. 논의 및 제언	28
A. 연구결과 요약	28
B. 연구의 의의 및 제언	29
참고문헌	32
부 록	40

표 목차

<표 1>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5
<표 2> 진로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6
<표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7
<표 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0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1
<표 6>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22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23
<표 8>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24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26
<표 10> 최종연구모형 경로계수 검증	26
<표 11>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2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4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25
<그림 3> 최종연구모형	2

국 문 초 록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오 하 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4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사회적 지지 척도, 진로탄력성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를 포함한 자기보고식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요약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진로탄력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탄력성이 필요한 내담자들을 위해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 용어: 사회적 지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진로탄력성, 매개효과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Tolerance of Uncertain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Oh Ha-Na

Advisor : Prof. Kim, Tack-Ho, Ed. D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olerance of uncertain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urveyed 400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four-year universities in Gwangju and Seoul Cit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elf-reporting questions, including demographic questions and social support scales, career resilience scales and tolerance of uncertain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3.0 and AMOS 23.0 as for to verify hypothesis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toler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resili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social support affects toler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resilience. Third, tolerance of uncertainty affects career resilience. Fourth, tolerance of uncertainty partly mediated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for university students in need of career resilience, and for those in need of competency development to cope with uncertain situ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program development.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 social support, tolerance of uncertainty, career resilience, mediating effects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시대 직업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및 정보화로 인해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높은 실업률로 인한 취업난, 정규직 감소 및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직업군의 다양화 및 전문화 등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물려 최근에는 ‘잡호핑족(Job-hopping族)’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한 번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며 직장에 한 번 취업하면 정년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문화는 옛말이 되었다. 취업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8%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할지, 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지를 고민한다고 보고하였다(데일리팝, 2019.10.18.).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은 어렵게 한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한 재도전을 준비해야 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과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지원의 필요를 느끼며 2015년 10월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現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이 외에도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여전히 대학생들이 현재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진로 및 취업’을 꼽았으며, 최근 4년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백지명, 2016; 이유정, 2012; 주금재, 2015; 차영은, 2013; 황지선, 2014).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발달시기가 전환 되면서 진로발달에 있어 과도기적 시점이다.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직업적 탐색과 선택, 그리고 구체적 실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Super, 1955).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전환 및 성인기 이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진로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중요하며, 현재의 적응은 이후의 적응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지현, 2009). 그러나 발달시기에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혼란을 겪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2019년 8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831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중 절반 가까이 되는 48.6%가 ‘아직도 무슨 일을 할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중앙일보, 2019.08.16.). 고등학교 이전에 진로를 결정했다고 밝힌 비율은 13.9%, 대학교 1학년은 8.5%, 대학교 2학년은 9.0%, 대학교 3학년은 9.7%, 대학교 4학년은 10.3%에 그쳤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발달과업에 맞춰

진로를 탐색 및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결정을 했더라도 진로를 고민하고 다시 탐색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진로선택 및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진로와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김유미, 유혜경, 2012). 또한 대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 영역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고(서유란, 이상희, 2012), 진로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훈, 2010; 김수진, 2018).

종합해보자면,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은 급변하는 사회변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진로선택에 대한 어려움으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개인이 안정적으로 미래의 진로환경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현 사회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용의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 보다 언제든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예전의 진로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이 주 관심 이었다면, 본 연구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역량은 요즘 진로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의 진로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적응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London, 1993). 이러한 급변하는 진로 환경에서 대학생은 단지 적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주도하고 유연하게 진로역경을 극복하여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는 탄력적인 태도나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김미경, 201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가장 일치하는 개념을 진로탄력성이라고 보고 설정하였다.

진로탄력성이란 건강한 발달에 초점을 둔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개념인 탄력성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이다(Noe, Noe, & Bachhuber, 1990). 진로탄력성은 진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관리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London, 1983).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로 목표 달성과 직업 적응 및 성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염태영, 2016). 또한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잘 극복하게 해주며(London & Mone, 1987), 진로결정에 더 적극적이고 진로결정을 잘 하는 특성이 있다. 반대로 진로탄력성 수준이 낮은 사람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김은영, 2001). 이처럼 오늘날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진로 및 취업현실 속에서 역경에 직면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 내적인 힘인 진로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진로는 진로탄력성 같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맥락적 변인의 영향도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경·맥락적 변인을 사회적 지지로 보았다.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수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승태, 박미하, 2013). 이는 역경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 지지 및 정보적 지지 등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진로탄력성이 높아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정적상관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염태영, 2017; 윤영숙, 2019).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한 개인을 둘러싼 타인들로부터 제공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Cohen & Hoberman, 1983)이자,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는 진로와 같이 인생 전반에 걸쳐 개인의 적응성을 높이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다(Cohen & Hoberman, 1983; House, 1981).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전환되면서 복잡한 환경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고 인정과 격려, 정보 제공, 전반적인 평가 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구를 필요로 한다(이원숙, 1995). 이러한 환경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 및 기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석민경, 조한익, 2016). 이렇게 사회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줄여주며 진로준비행동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 해결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진로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진로탄력성에서 강조하는 역경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진로 결정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경험할 수 밖에 없는 불확실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제언했으며(Gelatt, 1989), 진로 상담에서 진로미결정인 내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진로 선택에 대한 두려움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아라, 2013; 장진이, 2016).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진로연구에서 주목받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이란 인지, 정서, 행동적 수준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향으로(Dugas, Hedayati, Karavidas, Buhr, Francis & Phillip, 2005),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특성이다(Koerner & Dugas, 200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더욱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경험한다(오영아, 정남운, 2011; 윤소진, 장혜인, 2019). 불확실성은 일생에서 핵심적인 경험으로(Treevor-Robertts, 2006),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진로 과

정에서 불가피하게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Saka, Gati, & Kelly, 2008). 특히 불확실성에 대해 다른 문화권보다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한국의 경우(Hofstede, 1991),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더 어려움을 느끼고 발달시기에 적절한 진로과업을 완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을 예언하는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 변인들의 관계에 근거할 때,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언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관계(이보림, 2018; 이요안나, 2019) 및 진로탄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관계(전숙연, 2019)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하지만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세 변인 모두 불안과 관련된 유의한 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및 진로탄력성과 매개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의 상관관계에서 둘 다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이레, 2004; 최미경, 2016; 유혜숙, 양야기 2014; 장미경, 2018). 이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아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반대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과 정적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두 변인을 매개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이들의 상관관계를 보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직업세계의 적응이 그 어떤 시기보다 요구되는 현 시기에 대학생들의 진로탄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상담자의 역할과 개입방안에 대해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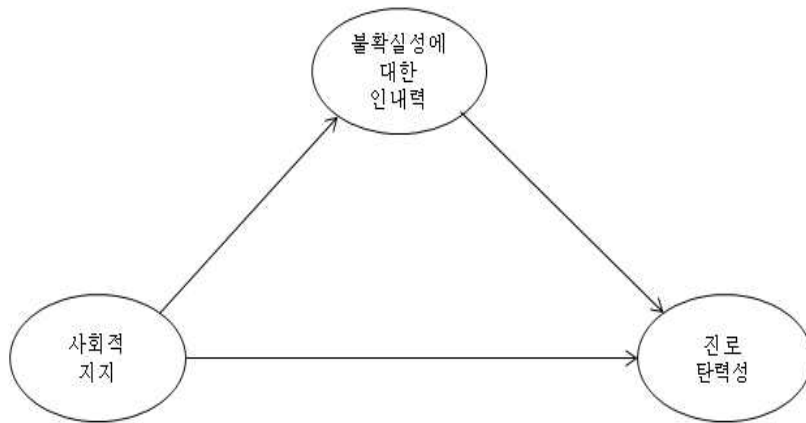
연구가설 1-2.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진로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가설 2-1.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매개할 것이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A. 사회적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특징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은 한 개인을 둘러싼 타인들로부터 제공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Cohen & Hoberman, 1983)이자, 자신이 필요로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져 왔다. 처음에는 단일적으로 보살핌과 같은 정서적 지지만을 정의했는데(Cobb, 1976; Procidano & Heller, 1983), 이후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판단하여 접근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적지지, 기구적지지, 정보의 제공, 평가적 지지로 제안하였다(Caplan, 1974). 이후에는 정서적 지지, 존경 지지, 관계망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으로 언급하며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으며(Cobb, 1976), 또 다른 연구자는 유형적 지지, 평가적·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였다(Schaefer, Coyne & Lazarus, 1981).

이와 비슷한 방향에서 국내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한 사회적지지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박지원(1985) 또한 사회적 지지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인간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대화형태의 도움인 정서적지지, 새로운 직업 정보를 알려주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심리학적 유형의 도움인 정보적지지,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개인이 객관적인 환경 안에서 중재를 통해 도와주는 행위인 물질적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 혹은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형태로, 개인이 자기 스스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하도록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평가적지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박지원, 198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고 명명 했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실제로 받은 지지를 말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고 지각하는 것(김경자, 2016)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적응을 예언하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 Waltz, 1991) 또한 객관적인 측정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

는 지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조은아, 2010). 뿐만 아니라 비록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제공받은 개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송중용, 1988) 개인의 지각을 토대로 하는 측정 방향이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세다.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다(이정선, 양지웅, 2013).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는 성취동기를 발달시키고 높은 진로포부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armer, 1985; Rooney, 1983),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지원 및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ng, Fouad, & Smith, 1999).

사회적 지지는 국내 외 진로영역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관련 변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 간의 정적상관을 보고하였다(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노미순, 1999; 이선영, 2004; 최유열, 2012, 송현심, 홍혜영, 2010). 또한 사회적 지지는 다수의 진로준비행동에도 관련성을 보였다(김중학, 최보영, 2015; 김인정, 2018; 이현진, 2009). 그 외에도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이현림, 송재영, 200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서보람, 2016). 진로태도성숙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배남희, 2014; 이현진, 2009; 한수현, 2003), 진로적응성(정지은, 2013) 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여러 진로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진로관련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과정에서 겪는 역경을 극복하여 변화에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진로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B. 진로탄력성

1. 진로탄력성의 개념 및 특징

진로탄력성이란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개념인 탄력성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이다(Noe, Noe, & Bachhuber, 1990). 탄력성 중 대표적인 개념인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자극 및 상황에서 융통성있게 대처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스트레스 및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다(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이전에는 탄력성을 타고난 능력으로 보는 관점도 있었지만(Lifton, 1993) 지금은 대체적으로 환경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며 숙련되어지는 능력으로 보며(Gordon, 1995), 탄력적

인 행동, 사고, 활동을 배우고 개발함으로써 역경에 적응하는(Rickwood et al., 2004) 긍정적인 능력으로 본다(윤영숙, 2019에서 재인용).

위의 정의를 보아 진로탄력성은 진로환경에서의 회복력으로 직업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진로과정에서의 역경 극복과 변화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역량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성장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Gordon & Coscarelli, 1996). 즉,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역경이 닦혔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Noe, Noe, & Bachhuber, 1990).

London(1983)은 다차원적 진로동기이론에서 진로정체성,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 세 영역으로 구분하며 진로동기 이론의 일부분으로 진로탄력성을 제시하였고, 이는 진로 행동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로동기 모델은 하위개념의 일부로써 진로탄력성을 다루고 있고, 개념을 측정하기에 문항 수가 너무 적다. 또한 심리적 구인들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조직을 대상으로 고안 된 변인이라는 점에서 대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진로탄력성의 구성요소는 연구마다 다르게 구성하고 있지만 모두 탄력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의 개념과 대동소이한 차이를 나타낸다(김미경, 2014). 국내 연구에서 김미경(2014)은 11명의 연구자들의 진로탄력성의 구성요소를 분류하여 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위요인은 크게 개인적, 직무적,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고 개인적요소로 ‘자기신뢰’와 ‘성취열망’, 직무적 요소로 ‘진로자립’과 ‘변화대처’, 사회적 요소로 ‘관계활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김미경(2014)의 정의와 구성요인 및 척도를 채택하여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진로탄력적인 사람은 진로장애물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진로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지고 다른 상황들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Dyer & McGuinness, 1996). 또한 진로탄력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아의식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실직상황에서도 자기가치를 지키고 정체감의 손상 없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한다(김기승, 2014). 이에 따라 진로탄력적인 사람은 곧 새로운 목표를 찾거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탄력성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지만 최근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다.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을 살펴 본 연구를 보면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정적상관의 연구결과(이지혜, 2013)가 있다. 또한 현장실습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진로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유지원, 송윤희, 2017)가 있고, 진로정서조절과 진로미래와 진로탄력성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정서조절과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결과(김미경, 안운정, 김경아, 2018)가 있다. 그리고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유의한 영향(김은선, 이희수, 2018)을 주는 등 점차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진로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박분희(2019)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진로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진로발달은 단순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복잡하고 잦은 변화에 놓이게 된다(Bimrose, Barnes & Hughes, 2008; Lo Presti, 2009). 특히 대학생은 발달 시기 상 진로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며, 진로탄력성이 더욱 요구되어야 한다.

2.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해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향상시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지원, 1985).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언과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를 대처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돕는 기능도 있다(강민정, 2015) 이에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승태, 박미하, 201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최근에서야 진행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염태영, 2017)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간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윤영숙, 2019)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류진숙, 2012),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에 정적상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요인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지혜, 2017). 이와 더불어 다른 대상간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간의 유의한 설명이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혜수, 2005),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정혜옥, 이옥형, 2011). 그리고 비인문계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을 높여주고, 진로준비행동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한다(김희동, 남수미, 2016)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탄력성 및 탄력성을 향상시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역경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탄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진로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C.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개념 및 특징

최근 진로분야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진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적응을 저해하는 요소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Gati, Gadassi 외 2011; 전숙연, 2019 재인용)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이란 인지, 정서, 행동적 수준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향이라 정의할 수 있다(Dugas et al, 2005).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불안해 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며(Dugas, Buhr, & Ladouceur, 200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란 문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최혜경, 199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애매한 정보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과도한 두려움을 보인다. 이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유발하는 정서가 두려워 곤란한 정서적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 인지적 회피를 하게 되는데, 부정적 정보를 회피함으로써 더 많은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야기한다(Newman & Liera, 2011; 이지은, 2018 재인용).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더욱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경험하였다(오영아, 정남운, 2011; 윤소진, 장혜인, 2019)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경욱, 2009; 이아라, 이주영, 2015; 장진이, 2016)가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진로장벽을 크게 지각하게 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김나래, 이기학, 2012; 정미나, 엄정혜, 성벼리 & 양은주, 2011).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적응성과도 부적상관(황진아, 김은하, 2016)을 보이는 등 진로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변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으면 불확실한 미래에도 적응적으로 반응하여 진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

하면 불확실한 미래에서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며 진로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여대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보림, 2018)와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에서 여학생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남학생의 경우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이요안나, 2019)가 확인되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애매한 정보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과도한 두려움을 보인다. 이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유발하는 정서가 두려워 곤란한 정서적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 인지적 회피를 하게 되는데, 부정적 정보를 회피함으로써 더 많은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야기한다(Newman & Liera, 2011; 이지은, 2018 재인용).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선행연구에서 불안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써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신수진, 홍혜영, 2014; 김슬기, 장혜인 2014; 문화진, 2019)

불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준다(최미경, 2016)는 결과가 있으며 청소년의 시험불안을 사회적 지지가 감소시킨다는 결과(김이레, 2004)가 있다. 유사하게 사회불안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정문경, 오은주 2015)이 있다,

정리하자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불안 또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적지지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 때는 사회적 지지와 부적상관을 보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으면 사회적 지지와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탄력성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존재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전숙연(2019)의 연구에서는 진로동기 하위요인인 진로탄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유의한 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추론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안과 관련된 유의한 변인으로써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신수진, 홍혜영, 2014; 김슬기, 2014; 문화진, 2019).

불안과 관련하여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이 높으면 불안이 낮고, 탄력성이 낮으면 불안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사회불안이 낮다는 연구 결과(장미경, 2018)와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시험불안이 낮다는 연구 결과(유혜숙, 2014) 등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정리하자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으며 진로탄력성과 불안 또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탄력성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 때는 진로탄력성과 부적상관을 보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으면 진로탄력성과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D.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역경이 닦쳤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Noe, Noe, & Bachhuber, 1990)으로, 타인들로부터 제공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과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Cohen & Hoberman, 1983; 박지원, 1985)이 있다면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역경이 온다 해도 이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되기에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역경이 닦쳤을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면 환경·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요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문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탄력성을 예언하는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간에도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변인들의 관계에 근거할 때,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통해 진로탄력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 하는지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서울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총 410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 중 문항을 누락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119명(29.8%), 여학생 281명(70.3%) 총 400부가 최종 분석에 자료로 사용되었다.

B. 측정 도구

1.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고자 이현진(2009)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지원(1985)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윤혜정(1993)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고, 이현진(2009)이 이해하기 쉽게 문항을 다시 수정한 척도이다.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서 지지 7문항, 정보지지 6문항, 물질지지 6문항, 평가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까운 주변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현진(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지지 .927, 정보지지 .909, 물질지지 .904, 평가지지 .893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전체는 .969이었다. 본 연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1> 사회적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정서지지	7	1,2,3,4,5,6,7	.922
정보지지	6	14,15,16,17,18,19	.899
물질지지	6	20,21,22,23,24,25	.908
평가지지	6	8,9,10,11,12,13	.896
합 계	25		.968

2. 진로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2014)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진로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기신뢰 6문항, 성취열망 6문항, 진로자립 6문항, 변화대처 6문항, 관계활용 6문항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역경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미경(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자기신뢰 .875, 성취열망 .878, 진로자립 .874, 변화대처 .843, 관계활용 .897, 진로탄력성 전체는 .933이었다. 본 연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표 3>과 같다.

<표 2> 진로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자기신뢰	6	1,2,3,4,5*,6	.843
성취열망	6	7,8*,9,10,11,12	.721
진로자립	6	13,14,15,16,17*,18	.784
변화대처	6	19,20*,21,22,23*,24	.658
관계활용	6	25,26,27,28,29*,30	.743
합 계	30		.913

*는 역채점 문항임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Korean-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14; K-IUS-14)

국내에서는 최혜경(1997)이 번안한 척도와 김순희(2010)이 번안한 단축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슬(2016)이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를 진행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역 채점을 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Tolerance of Uncertainty)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약자(TU)로 하위요인들을 명명하여 기술하였다. 이슬(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899,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 .86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전체는 .926이었다. 본 연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표 4>과 같다.

<표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7	1,2,3,4,5,10,14	.905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	7	6,7,8,9,11,12,13	.913
합 계	14		.947

C.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9월 동안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320부의 설문은 직접 설문지를 돌려 수거하였으며, 90부의 설문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거하였다. 한 학년과 소수의 전공계열에만 편중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공계열 및 다양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배부 및 실시를 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10분정도였으며, 총 410부의 설문 중 문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400부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D.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3.0을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를 실시하였고,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경쟁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치로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 중분적합지수인 TLI, CFI, IFI 그리고, RMSEA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A. 기초통계분석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계수가 4-5 이상으로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또한, Durbin-Watson 지수는 2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이고, 0이나 4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에서 공차한계는 .886-1.000, VIF 계수 1.000-1.129, Durbin-Watson 지수가 1.843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므로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자는 70.3%고, 남자는 29.8% 순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고, 연령의 경우에는 20세 이하가 46.4%, 21~23세가 4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27.3%, 3학년이 24.8%, 4학년 이상이 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의 경우에는 공학계열이 2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문·사회계열이 25.8%, 자연계열이 13.5%, 의·치·약·간호계열이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00)

요인	구분	N(%)
성별	남	119(29.8%)
	여	281(70.3%)
학년	1학년	110(27.5%)
	2학년	109(27.3%)
	3학년	99(24.8%)
	4학년	82(20.5%)
전공	인문·사회계열	103(25.8%)
	사범계열	33(8.3%)
	공학계열	106(26.5%)
	자연계열	54(13.5%)
	의·치·약·간호계열	45(11.3%)
	예체능계열	4(1.0%)
	외국어계열	1(0.3%)
	경상계열	33(8.3%)
	기타	21(5.3%)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사회적지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및 진로탄력성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료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2이하, 7이하로 표본의 정상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00)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서지지	4.20	.60	-.38	-.41
정보지지	4.11	.62	-.31	-.38
물질지지	4.04	.67	-.40	-.04
평가지지	4.14	.61	-.20	-.69
사회적지지	4.12	.57	-.20	-.54
TU1	3.08	.88	.13	-.48
TU2	3.31	.91	-.15	-.6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3.20	.86	.03	-.52
자기신뢰	3.74	.67	-.14	-.18
성취열망	3.79	.57	-.01	-.29
진로자립	3.79	.58	.07	-.08
변화대처	3.25	.60	.20	.90
관계활용	3.96	.63	-.04	-.63
진로탄력성	3.70	.49	.30	-.09

* $p < .01$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r=.628, p<.01$),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r=.338, p<.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탄력성($r=.465, p<.01$)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N=400)

연구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정서지지	1													
2 정보지지	.791**	1												
3 물질지지	.727**	.768**	1											
4 평가지지	.850**	.834**	.758**	1										
5 사회적지지 전체	.922**	.922**	.888**	.936**	1									
6 TU1	.298**	.284**	.290**	.291**	.318**	1								
7 TU2	.320**	.297**	.289**	.296**	.328**	.826**	1							
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전체	.324**	.304**	.303**	.307**	.338**	.954**	.957**	1						
9 자기신뢰	.538**	.550**	.515**	.576**	.593**	.433**	.478**	.477**	1					
10 성취열망	.432**	.451**	.425**	.458**	.481**	.285**	.284**	.298**	.660**	1				
11 진로자립	.402**	.404**	.431**	.440**	.457**	.290**	.323**	.321**	.633**	.736**	1			
12 변화대처	.298**	.354**	.597**	.348**	.352**	.383**	.343**	.380**	.535**	.377**	.451**	1		
13 관계활용	.590**	.573**	.487**	.550**	.600**	.292**	.393**	.359**	.568**	.520**	.538**	.393**	1	
14 진로탄력성 전체	.573**	.590**	.544**	.600**	.628**	.426**	.462**	.465**	.861**	.821**	.838**	.693**	.764**	1

* $p < .01$

B.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2단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χ^2 이 137.332로 나타났으며, TLI가 .958이고 CFI는 .969, IFI는 .970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도 .07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N=400)

모형	χ^2	df	TLI	CFI	IFI	RMSEA
측정모형	137.332***	40	.958	.969	.970	.07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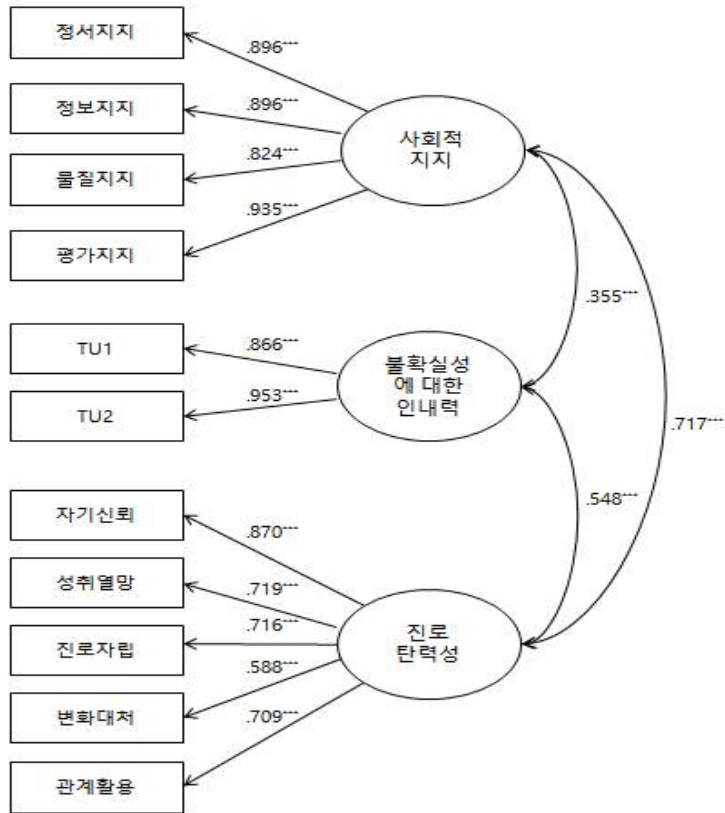
또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표 8>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분석 자료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모형이 자료에 타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N=400)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SE	C.R.
사회적지지	정서지지	1.000	.896		
	정보지지	1.027	.896	.038	27.181***
	물질지지	1.022	.824	.045	22.654***
	평가지지	1.061	.935	.035	30.01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TU1	1.000	.866		
	TU2	1.131	.953	.073	15.441***
진로탄력성	자기신뢰	1.000	.870		
	성취열망	.710	.719	.045	15.961***
	진로자립	.720	.716	.046	15.595***
	변화대처	.609	.588	.050	12.246***
	관계활용	.771	.709	.050	15.509***

*** $p < .001$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2. 구조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2단계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χ^2 이 137.332로 나타났으며, TLI가 .958이고 IFI는 .000, CFI는 .969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도 .07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반면, 경쟁모형은 χ^2 이 294.017로 나타났으며, TLI가 .893이고 IFI는 .970, CFI는 .921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나, RMSEA는 .124로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가 더 양호하게 나온 연구모형을 채택하여, 이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N=400)

모형	χ^2	df	TLI	IFI	CFI	RMSEA
연구모형	137.332***	40	.958	.970	.969	.078
경쟁모형	294.017***	41	.893	.970	.921	.12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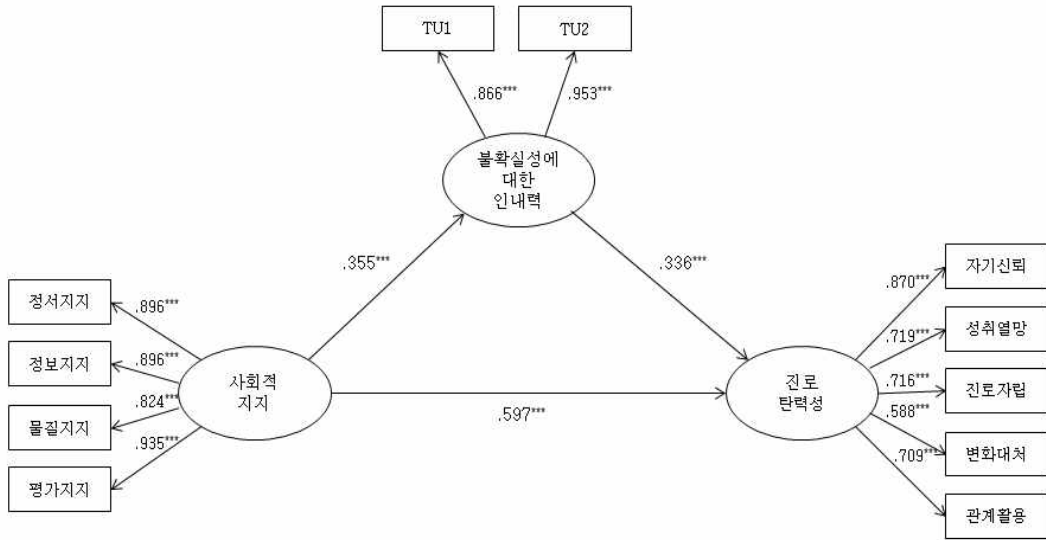
연구모형의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표 10>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에서 진로탄력성에 이르는 경로($\beta = .597, p < .001$), 사회적지지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이르는 경로($\beta = .355, p < .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서 진로탄력성에 이르는 경로($\beta = .336, p < .001$)의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았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았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가설 1-1, 1-2, 1-3이 모두 채택되었다.

<표 10> 최종연구모형 경로계수 검증

(N=400)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SE	C. R.
사회적지지 → 진로탄력성	.602	.597	.046	13.024***
사회적지지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473	.355	.072	6.61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 진로탄력성	.254	.336	.034	7.553***

*** $p < .001$



[그림 3] 최종연구모형

3.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매개로 하여 진로탄력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추정값 =.119, 95%(.078, .158)). 이러한 결과로 연구가설 2-1이 채택되었다.

<표 11>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N=400)

경로	표준화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사회적지지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 진로탄력성	.119**	.024	.078 .158

** p<.01

V. 논의 및 제언

A.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진로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요인인 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는 진로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인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서 긍정적 자원과 지지를 받는 대학생은 진로 역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염태영, 2017; 윤영숙, 2019)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진로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그 하위요인인 TUI, TU2와 진로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인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문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정보가 부족한 불확실한 진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대학생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진로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전숙연,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요인인 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그 하위요인인 TU1, TU2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서 긍정적 자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대학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이보람, 2018; 이요안나, 2019)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두 변인 사이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종속변인인 진로탄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종속변인인 진로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통제했을 때 사회적지지가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하위요인인 TU1, TU2 모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진로탄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통해 진로탄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상담이나 진로 관련 집단상담이나 프로그램에서 진로탄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김경옥, 2009; 김나래, 이기학, 2012; 황진아, 2016)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변화와 유연성이 더욱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변인인 진로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구가 미비한 진로탄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탄력성을 비롯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맥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진로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연함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진로탄력성이 낮은 대학생들의 치료적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진로탄력성이 필요한 내담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공한다.

또한 주변에서의 칭찬, 관심, 정보제공, 도움 등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진로미결정 등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진로탄력성이 낮은 대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환경·맥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찾아내어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개입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 서울 소재의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일반화 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으로 표집을 확대해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일반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의 대학생에게는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문항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여 왜곡 반응을 보이거나 부주의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및 방어 경향으로 인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불실실하고 편파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행동관찰법, 면접법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라는 변인 하나만을 매개변인으로 연구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에서 변화와 탄력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대학생 내담자들을 위해 진로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적응적인 변인과 반대로 진로탄력성을 낮추는 매개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대학생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자의 개입방법과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탄력성을 관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진로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내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진로상담 전략 수립과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취업역량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고 검증 한다면 진로탄력성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강경훈 (2010). 대학생이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정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09.
- 김경자 (2016). 대학생의 진로신념과 관련요인들의 관계 구조 분석.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승 (2014).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13(3), 1054-1060.
- 김나래, 이기학 (201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 사회 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31(4), 111-134.
- 김미경 (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안윤정, 김경아 (2018). 대학생의 진로정서조절과 진로미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연구**, 18(19), 889-918.
- 김수진 (2018). 고등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청소년-부모 진로일치의 조절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슬기, 장혜인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재확인 추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997-1017.
- 김유미, 유혜경 (2012). .고위험군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연구-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3, 215-230.
- 김은선, 이희수 (2018).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8(1), 115-136.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레 (2004).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학업자아개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9, 115-131.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인정 (2018). 사회적 지지가 직업훈련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학, 최보영 (20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43-169.
- 김희동, 남수미 (2016).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4(2), 53-80
- 노미순 (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데일리팝 (2019).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4>
- 류진숙 (20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승태, 박미하 (201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인지된 고용가능성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79-104.
- 문화진 (2019).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 불안의 관계: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797-815.
- 박분희 (2019).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진로탄력성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1347-1368.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남희 (201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지명 (2016). 2015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9, 53-82.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서보람 (2016).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민경, 조한익(2016). 청소년의 불안/우울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및 갈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1). 1-23.
- 송종용(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지지가 이중과제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수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 정서인

- 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4), 96-116.
- 염태영 (2016).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71-691.
- 유지원, 송윤희 (2017).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 유무 집단에 따른 실무역량,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의 잠재평균 비교. **진로교육연구**, 30(1), 183-202.
- 유혜숙, 양야기 (2014).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아개념이 대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21(3), 275-282.
- 윤소진, 장혜인 (20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걱정과 반추의 공통 요인(반복적 부정적 사고)과 차별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709-734.
- 윤영숙 (2019). 대학생의 분리개별화, 자기개념명확성, 사회적지지 및 진로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림 (2018). 여대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라 (2013). 진로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회피 기반처치가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아라, 이주영 (20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따른 진로결정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6(1), 221-241.
- 이유정 (2012). 201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5, 43-64.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이원숙 (1995).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실천적 접근. 서울: 弘益齋
- 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에 관계에 대한 성차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37-53.
- 이슬 (2016). 한국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요안나 (2019).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양지웅 (2013).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진로미래 간의 모형 검증. **진로**

- 교육연구, 26(3), 143-164.**
- 이지혜 (2014).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17).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송재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2018).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통합인문학연구, 10(1), 193-217.**
- 장진이 (2016).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 정서조절어려움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7(2), 121-138.**
- 전숙연 (2019). 대학생의 진로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성취압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경, 오은주 (2015).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35-361.**
- 정미나, 엄정혜, 성벼리, 양은주 (2011). 청소년의 심리적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 내외통제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3), 359-377.**
-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욱, 이욱형 (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4.**
- 조은아 (2010). 낙관성 비관성이 대학생활적응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수 (200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학생생활상담, 23, 57-81.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주금재 (2015). 2014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8, 47-68.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소.**
- 중앙일보 (20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53794>
- 차영은 (2013). 201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6, 45-68.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최미경 (2016).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兒童學會誌**, 37(3), 53-68.
- 최유열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09).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1992). 「중학생의 진로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선 (2014). 2013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7, 49-72.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황진아, 김은하 (2016). 상담 전공 석사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적응성간의 관계: 자기성찰을 통한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6), 289-312.
- Bimrose, J., Barnes, S. A., & Hughes, D. (2008). Adult career progression and advancement: *A five year study of the effectiveness and guidance* (Number 99 · .2011). Coventry, UK: University of Warwick, Warwick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Behavioral Publications.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ugas, M. J., Buhr, K., & Ladouceur, R. (2004).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pp. 143-163). NY:

- Guilford.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K., & Phillip. N. A.(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57-70.
- Dyer, J. G.,& Mc Guinness,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 276-282.
- Gelatt, H. B. (1989). Positive uncertainty: A new decision making framework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52-256.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Gati, I., Gadassi, R., Saka, N., Hadadi, Y., Ansenberg, N., Friedmann, R., & Asulin-Peretz, L. (2011).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Facets of career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1), 3-20.
- Gordon, K. A. (1995). The self-concept and motivational patterns of resilient Afric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1, 239-255.
- Gordon, K. A., & Coscarelli, W. C. (1996). *Recognizing and fostering resilience. Performance Improvement*, 35, 14-17.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NY: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Lifton, R. J. (1993). *The Protean Self: Human Resilience in an Age of Fragmentation*. London. M. (199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 55-69.
-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620-630.

- London, M., & Mone, E. M. (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Helping employees make tough career decisions, stay motivated, and reduce career stress*. Jossey-Bass.
- Lo Presti, A. (2009). Snakes and ladders: Stressing the role of metacompeencies for post-modern career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9(2), 125-134.
- McWhirter, E. H., Hackett, G., & Bandalos, D. L.(1998). A casu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66-181.
- MG Newman, SJ Llera (2011).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3), 371-382.
- Noe, R., Noe, A., & Bachhuber, J. A. (1990).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 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 Procidano, Heller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1). 1-24.
- Rickwood, R. R., Robertz, J., Batten, S., Marshall, A., & Massie, K. (2004). Empowering high-risk clients to attain a better quality of life: a career resiliency framework.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1, Pro Quest Central Basic, 98-104.
- Rooney (1983).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life roles of worker, students, and homemaker for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324-342.
- Sarason, J. P., Pierce, C. R., Shearin, E. N., Sarason, I. G. & Waltz, J. A.(1991). Perceives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6.
- Tang, M., Fouad, N. A., & Smith, P. L. (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Vocational Behaviour*, 54, 142-157.
- Trevor-Roberts, E. (2006). Are you sure? The role of uncertainty in career.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3(2), 98-116.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Hoyle, Rick H.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부 록

<부록 1> 사회적지지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다음은 주변사람들(가족, 친척, 교수, 친구, 선후배)의 반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소 자신의 느낌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1	2	3	4	5
3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4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5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1	2	3	4	5
6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1	2	3	4	5
7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1	2	3	4	5
8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	1	2	3	4	5
9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1	2	3	4	5
10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한다.	1	2	3	4	5
11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	2	3	4	5
12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3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1	2	3	4	5
14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줄 것이다.	1	2	3	4	5
15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1	2	3	4	5
16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1	2	3	4	5
17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	1	2	3	4	5
18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1	2	3	4	5
19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1	2	3	4	5
20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1	2	3	4	5
21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울 것이다.	1	2	3	4	5
22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1	2	3	4	5
23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줄 것이다.	1	2	3	4	5
24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줄 것이다.	1	2	3	4	5
25	내가 몸져누웠을 때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을 대신해줄 것이다.	1	2	3	4	5

<부록 2> 진로탄력성 척도

[진로탄력성 척도]

다음은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자신을 잘 설명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1	2	3	4	5
2	나의 진로에서 어떤 일도 결국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3	나는 나의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1	2	3	4	5
4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진로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다.	1	2	3	4	5
6	진로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나 자신을 믿는다.	1	2	3	4	5
7	내가 추구하는 삶의 비전(목적)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이루고 싶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1	2	3	4	5
9	나는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다.	1	2	3	4	5
10	내가 생각하는 분명한 성공의 기준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꿈과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생각하면 의욕이 생긴다.	1	2	3	4	5
12	나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편이다.	1	2	3	4	5
13	진로와 관련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한다.	1	2	3	4	5

14	나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15	내 진로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려 한다.	1	2	3	4	5
16	나는 진로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한다.	1	2	3	4	5
17	진로관련 잘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5
18	나는 진로를 위해 준비하며 노력한다.	1	2	3	4	5
19	나는 역동적인 변화를 오히려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20	나는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1	2	3	4	5
21	낯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1	2	3	4	5
22	갑작스런 변화에도 짜증내지 않고 차분히 대처한다.	1	2	3	4	5
23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1	2	3	4	5
24	나의 진로에 갑작스런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한다.	1	2	3	4	5
25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26	진로에서 좌절했을 때 친구나 가족의 위로가 도움이 된다.	1	2	3	4	5
27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1	2	3	4	5
28	나의 스트레스를 털어 놓을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29	내 주위에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	1	2	3	4	5
30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부록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한국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척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정도에 [V]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래의 불확실함은 내가 확고한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방해한다.	1	2	3	4	5
2	미래의 불확실함은 인생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	1	2	3	4	5
3	미래의 불확실함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1	2	3	4	5
4	나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지 못하면 좌절한다.	1	2	3	4	5
5	미래의 불확실함은 내가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방해한다.	1	2	3	4	5
6	어떤 일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	2	3	4	5
7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1	2	3	4	5
8	확신이 없으면, 나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1	2	3	4	5
9	확신이 없으면, 나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1	2	3	4	5
10	미래의 불확실함은 나를 나약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	1	2	3	4	5
11	아주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	1	2	3	4	5
12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1	2	3	4	5
13	나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	1	2	3	4	5
14	나는 살면서 느끼는 모호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